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조국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선배님들 그리고 5 만 꽃다운 미국 젊은이들이 목숨 바쳐 지켰고 우리들이 땀 흘려 세계 10 위권까지 진입시켜놓았다며 자랑스러워했던 나의 조국 이제 그 명이 다하려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 너무 서글픕니다.

한 사람의 생명 이라도 죽지 않게 하려고 애써야 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써 한 나라가 공산화 되었을 때는 몇 천만 명의 목숨들이 죽는 것이기에 지금 그 목숨 얘기하는 것이지 정치 얘기하려는 것 아닙니다. 환자를 대할 때는 밖에 보이는 증상 아닌 속에 숨은 원인을 보도록 교육 받은 직업인의 관점으로 조국의 현 상황을 또 짚어보려 합니다.

과거 광우 병 파동 때 모든 언론들이 온통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서만 왈가왈부 할 때 나는 그 논쟁의 무의미함을 지적했었습니다. 쇠고기는 핑계거리로 쓰였을 뿐 그 세력의 의도는 광우병 아닌 '반미'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사태 역시도 어느 세력이 광복 이후 62 년간을 끈질기게 공작해 오고 있는 '남조선 적화'라는 연극의 각본대로 전개되고 있는 한 장면일 뿐입니다. 최순실 박근혜는 각본에 쓰인 대로 연출에 이용 되고 있는 출연배우에 불과한데 그런 각본이 있는 줄도 모르는 우매한 백성들은 배우들에게만 돌팔매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순실이 아니더라도 그들은 박순실 김순실 얼마든지 만들어 대치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각본에는 어차피 죄인으로 연출하도록 되어있기에 죄목 같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도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은 죄명거리 가지고 논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논쟁 하려거든 죄목이 아닌 그 죄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파면시켜야 할 정도인지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논리적이런 만 말입니다. 지금 박근혜 구속까지 왔지만 그들 각본의 끝은 거기 아니요 나라 통 체로 집어 먹는 것까지인데 지금 그 목표 거의 도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망해가는 것 자체도 슬프지만 더 서글픈 비극은 초등학생 수준 정도의 판단력만 있어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유치하고 말도 되지 않는 그 연극의 전개를 대다수 국민들은 아무 비판 없이 그대로 관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가 망해 가는데도 어디로 가는지 감각도 걱정도 없고 무사태평 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 지난 몇 십 년 세월 그토록 치밀하게 각계각층에 침투하여 모든 것을 장악했다는 것을 눈 앞에서 확연히 보면서도 무지한 백성들은 아직도 그런 scenario가 있다는 것도 또 읽을 줄도 모르고 눈앞에 전개 되고 있는 사건만을 기초한 찬반 논쟁만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태의 진단은 남조선 적화목표 가진 세력과 부정 부패 척결에 저항하는 세력 그리고 정치적 야욕 가진 자들의 의도된 합작품이라는 것은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어느 편에 서있느냐 상관 없이 이제 다들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 불만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라도 공산당원이 아니라면 일단 각본대로의 공산화 만은 막고 나라를 살려야 된다는 것엔 이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부터는 그 대처 법을 찾아 망하는 것만은 함께 막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은 현재 한국사회 전체가 세대갈등 지역갈등 계층갈등으로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데 비록 서로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90% 그들은 공산화 되는 것만은 원치 않는 조국을 사랑하는 근본 마음만은 같다는 것입니다. 다만 차별대우나 잘 못된 교육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일단 세뇌된 사상을 완전히 돌릴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포기하고 최소한 악한 의도의 세력에 이용당하는 것만이라도 막기 위해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선거로 결정 될 것인데 선거는 결국 머리 수이기에 소위 빨갱이 아닌 촛불 쬐은 이들은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지 다른 세력들이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별 생각 없이 촛불 든 세대도 문제지만 나와 다른 것은 다 나쁜 것으로 정죄하며 용납하지 않는 기성세대의 '꼴통' 태도도 그들을 빨갱이 편으로 서도록 쫓아내는 요인이라는 것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내 고향 전라도민들, 그리고 세월 호 희생 유족들에게 또 호소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냉정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전라도사람을 사랑해서 또 희생 아이들이나 유족 여러분들이 안쓰럽고 슬퍼서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 해도 그러지 않을 3 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노랑 리본 달고 다니는 쇼를 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무슨 특별법이다 무어다 하여 특혜를 받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요 일반 국민으로부터 여러분을 미움 받도록 하여 따돌림 받아 나라를 분열

시키려는 의도라는 것 다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작전 성공하여 그들 만면에 미소 짓고 있는 것 보이지 않지요. 지금 그들의 의도 알아 차리고 그 동안의 희생자였던 여러 분의 태도와 방향설정에 따라 조국의 운명 결정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시점 길은 두 가지뿐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눈앞에 닥친 선거에 출신지역 정파 과거의 한 그런 것 따지지 말고 정말로 이제는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는 자세로 임해야 함을 고국에 있는 가족 친지들 일깨워야 합니다. 지금 숨 넘어가고 있는 환자를 앞에 누여놓고는 좌파 우파 경상도 전라도 여당 야당 누구 지지 반대 따위를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붉은 물 들어 있는 대통령 당선 될 가능성 많을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는 고통이겠지만 박대통령 수감 되어야 한다고 저는 말 해왔습니다. 잠자는 사자 깨워 단합하는 계기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었는데도 잠 깨지 않는다면 그 무관심도 죄악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도움 간구하는 일입니다.

좌경화도 문제이지만 한국사회 구석구석 전반이 거짓과 부정부패로 꽉 차있고 지금 한국인 들의 mentality 모든 면에서 병적 수준인 것이 더 문제입니다. 설혹 적화 되지 않는다 해도 이대로 가는 한 언젠가는 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화냥년' '호로 자식'의 유래 아시지요?

청나라에 망한 조선의 젊은 여인네들이 조공처럼 바쳐져 끌려가게 되었지요. 정절을 최고로 여겼던 많은 여성들이 자결까지 하였지만 30 만명이 끌려가 성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가까스로 고향에 다시 돌아온 불쌍한 딸 누이 아내들을 더러운 '화냥년'이라 하여 천대하고 배척했고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호로 자식' 이라고 멸시 하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몸쓸 짓들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북에서 탈출하여 내려온 젊은이들을 얼마나 고생 했느냐며 따뜻하게 품어 환영해 주었던가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라'고 하였건만 아무리 정치성향이 다르다 하더라도 가족도 없는 처녀의 몸인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것 축하 한다며 술과 춤 파티 벌리는 저 한국의 젊은이들, 한 인간으로라도 보아주는 아량도 없는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추하고 슬픈 모습입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집어넣어 성공했다고 했겠지만 그런 자식으로 만든 그 부모가 과연 성공한 부모일까요?

어려울 때면 같이 부둥켜 안고 함께 울어주던 우리민족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까지 되었는지요?

지금 자기들이 성공한 줄로 알고 축제에 도취되어 있지만 언젠가 그것이 스스로의 무덤을 파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쓰레기 분리수거 위한 알곡과 가라지 구분하는 작업임을 모르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진실은 언젠가는 승리 한다는 것이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 이제 전 민족적 회개운동 있어야 대한민국 미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이 들었고 미국 땅에서 편히 살고 있으니까 오락으로 여생 enjoy 하고 있으면 되는 걸까요?

‘백성이 망해감을 보고도 경고 하지 않는 파숫군은 저주를 받으리라’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금식하고 회개하라 하였거늘 먹고 마시며 오락을 찾는도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경고 아닌지요. 고국의 친지들 우리라도 일깨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 간구하려면 정말 배운 입을 닫고 재 무릅쓰고 금식하며 간구 하라는 말씀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의인 열 사람이 없어 멸망 했습니다. 먼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들부터 회개운동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교계에서는 금식기도의 날 정했다고 합니다. 고국의 운명 부탁하는 마음으로 종교 상관 없이 이곳 우리도 언제 한 날 정하여 상징적 gesture 로라도 함께 한번 하자고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조국 이대로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북 7,000만 민족의 문제가 가장 쉽게 동시에 해결 되고 가장 인명 피해 적은 길인 북쪽의 악이 속히 제거 되기를 기도하렵니다. 이번 한국의 혼란과 박 대통령의 희생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항상 혼란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우리 한국을 위한 특별 scenario 라고 믿으렵니다.

저 개인의 다른 기도제목 하나는 이번 고통이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도록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4-1-2017 김 홍 식